

SHEZAD DAWOOD  
LEVIATHAN  
*On Sunspots and Whales*

September 1 (Sat.) — November 4 (Sun.) 2018

Opening reception for the artist:  
September 8 (Sat.) 5 — 7 PM

Artist Talk: On Sunday, September 9,  
Barakat Seoul will host a conversation between artist Shezad Dawood and an art critic Jinsang Yoo.



Barakat Contemporary will hold the solo exhibition *Leviathan: On Sunspots and Whales* by British artist Shezad Dawood during September 1 (Sat.)-November 4 (Sun.), 2018.

“Leviathan” is an ambitious art project that examines urgent issues of the contemporary era. Through linkages with experts from different fields, it explores the connections among various contemporary issues that remain insoluble or not fully understood including climate change, marine welfare, democ-racy, migration, and mental health. Consisting of ten episodic narratives and corresponding films, the project incorporates sculptures, paintings, a dedicated website, research publications and a public pro-gramme . The Barakat Contemporary exhibition is the third iteration of a world tour scheduled through 2021. With the contents subject to expansion as social incidents and issues aris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transformations and developments the project will undergo.

*Leviathan: On Sunspots and Whales* will premiere the presentation of the fourth episode of the ten-part episodic fictional narrative *Leviathan Cycle* . The films take place in an imaginary future where just a few survivors remain on Earth after some unexplained cataclysm in the solar system. Each epi-sode is titled after one of the survivors and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narrator representing a different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and culture. The textile paintings, presented as a series of hangings across the two gallery spaces, were developed in dialogue with the renowned tex-tile manufacturer Fortuny and incorporate several of their handmade fabrics. Artifacts and objects lost by migrants during sea crossing provide visual references for the textile works.

The exhibition will also feature a new sculpture inspired by an ancient statue in the Barakat Gallery collection and a new painting inspired by the Korean folktale of “Yeono and Seo.” A Hellenistic piece in the Barakat collection representing a male torso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e contrapposto stance in sculptures from the era, with coral reef remnants on the verdigris on the surface indicating that it laid submerged in the sea for a considerable time. Inspired by that sculpture, Shezad Dawood has cre-ated *On Becoming Virtual Octopi*, a male torso with an octopus head. Thus crossbred with an octo-pus, an organism with such advanced intelligence and senses that it has even been suspected of having an outer space origin, the form of this work envisions an evolved creature with entirely new senses.

“Yeono and Seo” is a rare record of a myth from ancient Korea about the sun, moon, and stars. A fisherman in the kingdom of Silla (57 BC-935 AD), Yeono is taken to Japan on a whale-like rock. Pining for her husband, Seo finds Yeono’s shoes on the same rock, which likewise takes her to Ja-pan. Thus reunited, the couple becomes the king and queen of their adoptive country. Following the couple’s departure, however, both the sun and the moon turn pitch black in Silla. In order to restore light to these celestial bodies, sacrificial ceremonies are held, with silk woven by Seo as the offering. Focusing on the motif of shoes as an example of lost personal items previously belonging to migrants and reinterpreting the original tale, Shezad Dawood transforms it into the textile painting *Island* showing a surreal sunset in the Azores.

“Sunspots and Whales”, the exhibition subtitle, conjures up the image of a black whale meeting the rising sun over a vast ocean in a point on the horizon. It both symbolizes and links seemingly unrelat-ed things, ranging from the distant sun in outer space to the abyss of the sea, from the imaginary mon-sters of myths to dangers that lurk yet remain unseen. It shows how many contemporary issues that seem independent of one another—the migrations of humans, plants, animals, and microbes; changes in the ecosystem;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are, in fact, linked in a single whole. Juxta-posing various images and stories with the knowledge of experts, the artist has developed his project like one vast network.

Shezad Dawood's "Leviathan: Sunspots and Whales" exhibition at Barakat Contemporary has undergone its own process of transformation through crossbreeding with Korean mythology and ancient art from the Barakat collection. We anticipate witnessing how the project will transform and expand as it encounters diverse experts and audiences in South Korea—an environment with a social backdrop and a culture differing from those of Europe, where the project first began.

Artist Shezad Dawood (b.1974)

Shezad Dawood works across disciplines film, painting, neon, sculpture and more recently virtual reality to deconstruct systems of image, language, site and narrative. Using the editing process as a method to explore both meanings and forms, his practice often involves collabo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mapping across geographic borders and communities. Through a fascination with the esoteric, otherness and science-fiction, Dawood interweaves histories, realities and symbolism to create richly layered artworks.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A Lost Future*: Shezad Dawood, Rubin Museum of Art, New York (2018); *Leviathan*, Fondazione Querini Stampalia, Venice (2017); Timothy Taylor, London (2016); Galerist, Istanbul (2016); *Pioneer Works*, Brooklyn (2015); *Fig.2* at the ICA studio, London (2015); *Parasol Unit*, London; Leeds Art Gallery and OCAT Xi'an, China (all 2014), Modern Art Oxford (2012). And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Drawing Room*, London (2017); Mori Art Museum, Tokyo (2016); Taipei Biennial (2014), Marrakech Biennial (2014), MACBA Barcelona (2014), Witte de With (2013), Busan Biennale (2010), Tate Britain, *Altermodern* (2009), and the Venice Biennale (2009). Selected collections include Tate, Government Art Collection, UK, UBS, The British Museum, London, LACMA, Los Angeles and National Gallery of Canada.

# SHEZAD DAWOOD

## 리바이어던 ○△ 흑점과 고래

2018.9.1 (토) - 11.4 (일)

오프닝 리셉션: 2018.9.8 (토) 5 - 7 PM

작가세미나: 2018.9.9 (일) 3 PM (셰자드 다우드와 유진상 평론가의 대담)



《리바이어던》은 이 시대의 긴급한 문제를 조망하는 예술 프로젝트이다. 기후 변화, 해양 복지, 민주주의, 이주민과 난민, 정신건강 등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답을 내기 어려운 현시대의 문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그 연결 고리를 탐색한다. 이 프로젝트는 총 10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소설과 이에 상응하는 영상을 주축으로, 조각과 페인팅, 전문가들의 토론과 텍스트 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라캣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전시는 2021년까지 세계 순회전으로 열릴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의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에 따라 내용이 확장될 수 있기에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리바이어던: 흑점과 고래》전에서는 《리바이어던》프로젝트의 중심을 이루는 영상 작업의 네 번째 에피소드를 최초로 선보인다. 영상은 태양계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격변으로 몇 명의 생존자만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가상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에피소드는 생존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며 국적과 인종, 성별과 문화가 다양한 각 화자 고유의 관점으로 서술된다. 또한 천 위에 그린 페인팅을 선보이는데, 이는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수공예 천 제작사인 포르투니(Fortuny)와 람페두사섬(Lampedusa)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배가 전복돼 사망한 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인 라바노프(Labanof)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포르투니 천 위에는 라바노프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난민들의 잃어버린 소지품이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바라캣 서울의 고대 예술품인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은 신작 조각품과 한국 설화 ‘연오랑 세오녀’에서 영감을 얻은 신작 페인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라캣 갤러리의 소장품인 헬레니즘 시대의 남성 토르소는 당시 조각의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표면의 녹청에 산호초 형상이 남아 있어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음을 나타낸다. 작가는 이 조각품에 대한 반응으로 남성의 토르소에 문어 머리가 얹힌 조각을 제작한다. 외계의 생명체로 의심될 정도로 뛰어난 지능과 감각을 가진 문어와 이종교배된 인간의 형상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진화된 생명체를 상상한다. ‘연오랑 세오녀’는 고대 한국의 일월 성신 신화를 담은 흔치 않은 기록물로서, 어부였던 연오랑이 고래와도 같은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남편을 그리워하던 세오녀도 바위 위에 놓인 연오랑의 신발을 보고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결국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 이야기 속 신발을 ‘잃어버린 이주민의 소지품’으로 주목하고, 또 차후 신라에서 해와 달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낸 이야기를 아소르스 제도(Azores)의 비현실적인 일몰의 순간으로 풀어내며 천 위의 페인팅으로 재해석한다.

전시의 제목인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 (Thomas Hobbes)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바닷속 거대한 괴물에 비유한다. 또, 이 괴물은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모비딕』의 거대한 고래나 포경선과도 연결된다. 작가는 미술 잡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의뢰 받고 자신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어 결국 글을 포기하고 소설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다. 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힘에 대한 알레고리로 ‘리바이어던’이란 바다 괴물을 제시한다.

전시의 부제인 ‘흑점과 고래’는 망망한 대해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검은 고래가 수평선 위에서 한 점처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이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태양부터 깊은 바닷속 심연까지, 실재하지 않는 신화 속 괴물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위협까지 상징하며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킨다. 작가는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의 이주와 생태계의 변화,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등 서로 독립된 듯 보였던 현시대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여러 이미지와 이야기를 병치하고 전문가의 지식을 더하며 하나의 거대한 망처럼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다.

《리바이어던》 프로젝트의 에피소드는 해양 생태학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자 결과보고서이다. 영상에서 생존을 위해 낚은 선박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은 가재나 플랑크톤, 태양의 반점과 같은 자연물에 빚대어진다.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 이동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작가는 해양 환경과 사회, 정치 체계간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의문을 품고 해양학자, 정치학자, 신경학자, 난민 전문가, 외상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얻으면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중 생물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내는 등 바다와 인간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낸다.

바라캣 서울에서 열리는 셰자드 다우드의 《리바이어던: 흑점과 고래》는 바라캣 소장품인 고대 예술품과 한국의 신화와 이중적인 결합을 맺으며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된 유럽과 다른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갖는 한국에서 여러 학자들과 관객들과 만나며 어떻게 변화하고 확산해갈지 기대하게 된다.

### 셰자드 다우드 Shezad Dawood (b.1974)

셰자드 다우드는 영상, 페인팅, 네온, 조각과 가상현실까지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이미지, 언어, 장소와 내러티브의 견고한 체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 편집의 과정을 통해 의미와 형태를 탐색하며, 종종 협력과 지식의 교환으로 지리적인 경계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작업 방식을 취한다. 난해하고 기이하며 공상과학적인 것에 매료되어 다우드는 역사와 현실과 상징을 결합하며 작품으로 만든다.

다우드는 영국에서 파키스탄인 어머니와 인도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아일랜드인 새어머니 아래 자란 독특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다우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혼성(hybrid)’일 것이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교차점이나 대립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작품에는 항상 대립되고 모순되는 요소가 공존한다.

개인전으로는 <잃어버린 미래 : 셰자드 다우드>, 루빈 미술관, 뉴욕 (2018), <리바이어던>, 쿠에리니 스타팔리아 재단, 베니스 (2017), <이 시간은 그때였던 시간이다>, 파이오니어 워크, 브루클린 (2015), <방>, ICA 스튜디오 Fig.2, 런던 (2015), <날카로운 빛>, 모던 아트 옥스퍼드, 옥스포드 (2012) 등이 있다. 그리고 단체전으로는 모리 미술관, 도쿄 (2016), 타이베이 비엔날레 (2014) 마라케시 비엔날레 (2014), 바르셀로나 현대 미술관, 바르셀로나 (2014), 부산 비엔날레 (2010), <얼터 모던>, 테이트 브리튼, 런던 (2009), 베니스 비엔날레 (2009) 등이 있다. 대표 소장처로는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정부 아트 컬렉션, 대영박물관, 캐나다의 국립 미술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그리고 UBS 아트 컬렉션이 있다.

셰자드 다우드는 1974년 런던에서 태어나 센트럴 세인트 마틴과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공부하고,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실험 매체 연구원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